

## 제36회 대덕이노폴리스 포럼

□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수석부회장 이종포

○ 주제 발표를 해주신 강성모 KAIST 총장님의 "Service Leadership for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천해야 할 것들이 Gandhi's 7 Deadly Sins(간디의 7가지 악덕)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노동 없는 부(Wealth without work)
- 윤리 없는 쾌락(Pleasure without Conscience)
- 인격 없는 교육(Knowledge without character)
- 도덕 없는 경제(Commerce without morality)
- 인간성 없는 과학(Science without humanity)
- 헌신 없는 종교(Worship without Sacrifice)
- 철학 없는 정치(Politics without principle)

○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위와 같은 기본 소양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간디의 7 가지 악덕은 1970년 사상계의 오적을 기고하고 큰 파란을 일으킨 김지하 시인 사건이 생각난다. 오적이란 당시의 특권 계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것으로 오적에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 포함되었다. 당시의 시대상을 어느 정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것이 변화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산통을 겪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의 활성화에는 반드시 자발적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원하는 소기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험생이 진학할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앞으로 자기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지 여부일 것이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반 직장을 가는 것 보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벤처창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되고 성공모델이 아주 많은 선진국을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 대신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보다는 훨씬 실패가 많고, 실패 뒤에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창업에 쉽게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 특히 대덕 연구단지는 여러 가지 좋은 벤처기업 활성화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점차 좋지 않은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우수한 인력이 서울 권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 연구소도 지방에서는 더 이상 우수한 인력을 뽑기 힘들어 서울/경기 권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지방은 문화적, 경제적 혜택, 모든 경제활동이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의 여러 핸디캡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카이스트, 충남대 등 양성된 고급인력은 대덕연구단지 보다는 서울권의 대기업 연구소를 선호한 지 오래다. 따라서 연구단지내 대기업은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아예 연구소를 서울권으로 옮기고 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도 어떤 이유에서든 자꾸 지연되고 있다. 그럴수록 이와 같은 탈 대덕연구단지 행렬은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정책적 추진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빨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대덕 연구단지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한 제언으로 연구원 창업을 활성화 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출연 연구소에서 10년에서 30년 이상 국가 재원으로 연구를 하고도 이를 실용화로 연결 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빈약하다. 바꿔 말하면, 실패의 가능성에 너무 매몰되거나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연구결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창업은 권장하되, 창업 후에 더 이상 국가나 연구소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대안으로 연구소 기업 제도는 좋은 정책이나 아직도 연구소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연구소 기업이 많은 데, 연구소 기업이 아닌 연구원 벤처 창업 기업은 생존과 성공의 어려움이 그 얼마인지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연구원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벤처기업 창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